

전남도, 올 친환경 농업 육성 1860억 투자

직접 지불제·유기질 비료 지원 등 17개 사업 인증비 지원 농가부담 신설... '묻지마' 확대 제동

전남도는 올해 도정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친환경 농업 육성에 1860억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하지만 전액 지원됐던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가운데 일부를 농가 부담으로 전환하는 등 확대 일변도 정책은 다소 수정됐다.

올해 주요 사업은 직접지불제,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친환경 비료 지원,

잔류농약검사 등 17개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지난해 수준이다. 토양을 살리는 자연순환농업 기반을 확충하려고 552억원을 들여 토양 개량제와 유기질 비료 각 14만6000t과 55만t을 1만8000ha에 파종할 수 있는 녹비종자를 공급한다.

무(無)제조제 농업을 위해 벼는 9만ha에 넣을 수 있는 새끼우렁이

(108억원)를 공급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기금(70억원)은 저리(1%) 융자한다.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도 2015년 준공을 목표로 289억원이 투입돼 나주에 조성된다. 친환경농업 광역단지와 마을·들녘별 단지 조성,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친환경 돌봄 조성 등에도 700여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그동안 도비 30%, 시·군비 70%에서 도비 20%, 시·군비 60%, 자부담 20%로 조정됐다.

친환경 인증 비용은 건당 신규는

67만원, 연장은 55만원에 이른다. 올해 전체 농가 부담은 30억원 가량이어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친환경 농업 면적을 늘리면서 지난해 농가 부담분을 없앴다가 '묻지마식' 확대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일부 부단체장이 구속되는 등 말썽이 일어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실천의지와 책임강화를 위해 농가 부담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또 무차별적 확대에 따라 추락한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위

해 올해 명예감사원 142명, 부정인증·유통신고센터 23곳 운영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전남지역 친환경 농업 면적은 6만 7798ha로 전국 11만9000ha의 57%를 차지한다. 2004년 대비 면적은 48배, 농가 수는 43배 늘었다.

위삼섭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그동안 다져온 친환경농업 육성 기반을 바탕으로 책임감 강화 등 분위기 쇄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장흥 유치 신덕마을 행복마을 '최우수상'

장흥군 유치면 신덕행복마을(위원장 김재수)이 지난해 도내 행복마을 평가에서 전남도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아 화제다.

주민 화합 프로그램, 한옥 민박 운영, 각종 협의회 참석, 유기농 농산물 생산 등 각종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급으로 받은 3000만원도 받아 향후 마을을 위해 쓸 예정이다.

해발 400m에 자리한 신덕행복마을은 전혀 관계가 없는 외지인들이 입주한 한옥 24동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주민 모두가 항상 친절하고 배려하면서 '이웃공동체'를 만들어 냈다.

고령자가 거주하는 곳에는 젊은 세대들이 직접 찾아가 친부모처럼 섬기며 난방이나 가정사 등을 돕고 호박, 감자 등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서로 나눠 먹고 있다.

이 밖에도 행복마을 워크숍, 전라남도 및 (사)행복마을 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 참여율도 가장 높은 정도로 '마을'에 대한 애정도 크다.

신덕행복마을은 한옥민박사업 및 친환경 유기농 인증단체로 조성(쌀, 조청, 호박조청), 쌀, 엿, 죽염, 통밀 빵 등을 생산해 주민들의 특산물 판매소득도 상당하다.

김재수 위원장은 "낯선 사람들이 만나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모두가 흔쾌히 참여해 농촌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3일에는 전라남도 행복마을 대표 51명이 신덕행복마을을 찾아 친환경유기농센터등 행복마을 내 시설을 견학하기도 했다.

/정흥=김용기기자 · 중부취재본부장



지하수로 재배한 황룡강 미나리
고 생으로도 먹을 수 있다.

장성 황룡강 미나리를 수확한 농민들이 2일 출하를 앞두고 포즈를 취했다. 황룡강 일대에서 재배한 미나리는 100m 지하수를 끌어 밤에는 물을 대고 낮에는 물을 빼내는 논밭철충형 방식으로 재배해 데치지 않고 /장성=김홍희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 거점고 2016년 개교 '탄력'

국비 지원 278억 최종 확정

강진군민의 숙원인 거점고 육성이 최종 확정됐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열린 교육부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 강진군 거점고 육성을 위한 국비지원 278억원이 최종 확정돼 2016년 개교에 탄력을 받게 됐다.

강진군은 심사장에 박준조 강진 부군수와 심경섭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긴급 파견해 거점고 지정의

필요성과 군민들의 염원을 강조하는 등 중앙 투융자 심사위원들을 설득한 데 이어 지난 달 28일 교육부장관의 재가를 받았다.

강진군은 거점고 지정에 위해 지난해 6월 초 '거점고 지정 범 군민 추천위원회'를 발족하고 군민의 35%인 1만4000여명이 참여한 범 군민 서명 운동을 적극 전개했다.

학년당 6학급씩 총 18학급으로 구

성되는 강진군 거점고는 올해 말까지 교사 신속관련 실시계획을 마친 후 2015년 착공해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일반·특별 교실 등 71실, 연립사택 1동(8세대), 기숙시설 증축(50실/200인), 급식시설 증축(200인), 다목적강당 보수(1동) 등 시설물 증·개축과 교육 인프라 구축,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전남 공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강진군은 성진고와 병영상고를 존

치하면서 강진고를 거점고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또한 강진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연간 평균 27억원을 투입해 으뜸 인재 육성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강진군민 장학재단을 통해 13개 분야 144억원의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군민의 노력과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강진군 거점고 지정이 현실화 될 수 있었다"며 "대도시와 동등한 시설과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현대삼호중공업, 안전도 최고등급

노동부·보건공단 실시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하경진)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조선업 안전보건 이행평가에서 조선업체 중 최초로 최고등급(우수)을 획득하는 영예를 안았다.

심사관들은 이행평가를 위해 업체를 방문해 유해위험성 평가, 안전보건문화, 안전보건교육, 현장 안전보건 이행 등 총 4개 분야를 점검했다. 이번 평가에서 현대삼호중공업은 90점 이상을 받아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국제적인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인증인 OHSAS18001, ISO14001 및 국내인증인 KOSHA18001을 획득해 경영에 반영하고 TBM(Think Before Move로 현대삼

호중공업만의 안전보건활동의 의미)를 정착해가면서 재해자를 획기적으로 줄인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단 한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달성했다.

안전문화활동의 결실로 유해위험성평가, 작업허가제도, 관리감독자의 점검제도 강화,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등을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한 성과도 컸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무엇보다 정부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회사로 평가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무재해 사업장 구현에 두고 교육과 투자를 지속해 자율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영암 가야금산조 테마공원 이달말 개관

영암군이 전국 최초로 조성한 가야금산조 테마공원이 이달 말 문을 연다.

2일 군에 따르면 가야금산조 테마공원 조성공사를 이달 말까지 끝내고 가야금 산조 관현 단체, 국악계 인사들 초청, 개관식과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 공원은 '가야금 산조' 참시자인 김창조 선생의 위업을 드높이고 고유 전통 음악의 보존·전승·연주 공간으로 활용된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공원이 문을 열면 영암 문화관광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전통 음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시작한 공원 조성사업에는 150억원이 투입됐다.

김일태 군수는 "월출산 기차랜드 구성 속의 하나인 가야금산조 테마공원이 문을 열면 이용객 수가 현재 (50만명)보다 한층 늘어나 지역경제 효과 또한 18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새 얼굴

"지역 특성 맞는 치안행정 펼칠"

한 영 록 강진경찰서장



"직원들이 공감하는 치안행정으로 친절하고 기본 좋은 강진경찰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한영록(52) 강진경찰서장은 "우리라는 생각을 못하는 이유는 회색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배려와 화합으로 하나 된 조직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서장은 "경찰행정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해야 한다"며 "지역민들을 이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원 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간부후보생 41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과천시 강력반장, 서울서부서 정보보안과장, 서울청 생활안전과 치안지도관 등을 역임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신축원룸전문(전대1분)

★전대상대 1분

등기완료, 공실없음 월수익 420만원 5000수익 최고위치,전면대리석 벽돌시공

매가 6억3천 (보증금 3천, 용 1억)

★전대용봉지구모아미래도APT코너

신축 4층 룬 19개(1층 상가, 4층 주택)

월수익 850만(1년 1억원 수익) 매가 12억(용 3억, 보 1억)

전대전문 원룸

룸 15개 월수익 500,매가 6억3

전대에술대 2분 코너앞

룸 13개 (4층 고급주택 40평 1개) 매가 7억8천

즉시입주가 가능 최고위치 월수익 455만원(4층주택 사용가)

★수원지구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1층임대 (18평) 보2천 월110만
3층매매(85평) 3억2천	3층임대 (86평) 보3천 월190만
모아엘가 상가 3층	
3층매매(62평) 2억8천	3층임대(62평) 보5천 월150만
세계로 병원 대로면	학원,병원, 사무실 기타적합

쌍촌동운천역1분 원룸형 주택 11평 매3500/13평 매4500

신한공인중개사 ☎010-6670-9800

경매전문

경매 투자 하실 분!

(공동투자가능)

(상가, APT, 원룸, 토지, 근생, 기타)

권리분석·입찰

매매·임대·자금

처음부터 끝까지 컨설팅 해드립니다.

◎경매 직원 구함◎

가족처럼 함께 하실 분

주)대신경매 ☎062-527-7600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금매 광주은행 본점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 건물 522㎡(158)공시지가 11억6천 매도 11억
- 금매, 지하철 쌍촌역 사거리 대로변 준주거 377㎡(111평)병원·사육·학원·자동차 정비시설 등 적합 7억6천
- 쌍촌동 2층 주거지 674㎡(204) 다가구, 다세대 적합 매입가에 매도 3억1500만원 투자에도 적합
-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228평 상가와 주택 원룸 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2천에 월 500선 수익 9억6천
- 식당건물 금매 금남로3가 부근 소방도로 접 대지 149평 건평 438평 은행 6억4천 전세 8천에 월 440선 법인이전 7억6천
- 신축 쓰리룸 건물 북구 우산동 대지 516㎡ 12세대 8억9천
- 나주시 봉황면 소재지 대지 119평 주택 30평 5천만원
- 모델,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지1677㎡(507)건평 422평 객실 48실 대충6억2천 매도 8억3천
- 사철적합 건물 함평군 월야면 땅 2657㎡(804)건물 2동 57평 은행 2억 기도원 할수 있는 산이 있는 주택과 교환가능 5억
- 전남대앞 신안동 4거리 상업지 대지 446㎡(135)4층 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2천
- 북구 우산동 상가와 원룸건물 대지331㎡ 건물 1366㎡(413평)은행 6억2천 보증금 8천선 월900만원 매도9억6천
- 나주시 남평읍 신축식당 대지 3537㎡(1070)건물 148평 은행 3억 임대는 5천에 3백 원룸부지와 교환가능 5억8천
- 북동 상업지 992㎡(300)오피스텔, 생활주택 등 다용도 8억

매도·임대

- 쌍촌동에 신축중인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오피스 9평형 주택, 입주는 1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높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초 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공장 금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지 3,305㎡ 건물 1,300㎡

- 사무실1.2층
- 높이 : 8m
- 호이스트3톤 2대
- 전기 :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하동 자연녹지(2,100㎡) 일반 공업지역(2,400㎡) 허가필, 매매가격18억원

쌍촌동 대로점 대지(1,100㎡)건물(300㎡) 매매가격 17억원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